



#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도부

## 뉴스초점

### 아시아 축산업 큰폭 감소 전망

#### 한국 전년 대비 16% 예상

최근 미국대두협회의 한 세미나 발표에서 언급된 동남아시아 국가의 축산업 전망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선 전년대비 사료생산전망에서 인도네시아 50%, 말레이시아 10%, 필리핀 15%, 태국 20%, 베트남 10%, 중국 2~8%, 타이완 20%, 한국 16%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금년 4월까지의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보면 전체가 약 9% 감소한 가운데 육계 14%, 산란계 5.5%가 지난 해에 비해 감소하여 감소 폭이 타 축종에 비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생산량이 높게 유지되었던 계란의 경우 여름철 이후 감소폭이 더 뚜렷해져야 소비감소에 따른 공급을 조절할 수 있어 채란농가의 손실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말경에 실업율이 최고 수준에 이른다는 경기전망을 감안할 때 추석, 연말, 연초 계란소비도 예년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 육용계 유·무창계사 검정성적

#### 무창전용사료 급여 필수적 지적돼...

분회가 '98년에 제1차('98. 3. 12~4. 29)로 실시한 제52회 육용계 검정성적을 분석하여 집계한 결과 무창계사 조건이 유창계사보다 생존율, 사료요구율에서 앞서게 나타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행한 시험에서는 과거의 규정에 따라 유·무창계사의 급이사료를 구분하지 않고 시험을 행하였기 때문에 생존율, 사료요구율 면에서 효과가 높았으나 체중의 경우 단순비교치로 볼 때에는 무창계사보다 유

창계사가 무거웠음을 볼 때에 무창계사에서 육계를 사육할 경우 이 환경에 맞는 전용사료를 구입하여 급이해야 무창계사의 잇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는 또 한 번의 증거를 제시한 예라 보여진다.

**산란실용계 병아리 감축  
평균 판매수 기준 약 8% 감소**

계란생산량이 소비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게 유지되어 생산비마저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조기에 해결하여 채란업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6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병아리 분양을 채란계 부화장들이 자체 결의를 통하여 실시한 바 있다. 이로써 최근 3년간의 자료로 비추어 평균 약 8%가 감소한 효과를 거두었는데, 실제로는 2주간의 병아리, 즉 4%만이 향후 생산에 감소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낙관하여 7월부터 초생추 증가, 환우증가가 이어지면 연말 감소 기대는 반감되기 때문에 무리한 생산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이 최상책으로 보인다.

**닭고기·계란 여름위생에 안전  
하자발생시 소비침몰할 수도...**

금년은 일찍부터 무더위가 시작되어 30℃를 오르내려도 예전과 같이 사람들은 더위에 그다지 민감한 것 같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다. 7월은 장마와 함께 기온이 더 상승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닭고기와 계란을 유통할 때에 보다 각별한 위생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하자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가 나빠 소비자들도 신경이 예민해

져 있어 닭고기와 계란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불상사가 나타나면 여름철 양계산물 소비는 침몰위기를 맞는다는 생각으로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축사시설 일제조사  
농림부, 7월부터 한달간 실시**

농림부는 7월 한달동안 전국 축사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게 된다. 닭을 비롯한 한육우, 젓소, 돼지 등 주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데 1~2마리의 영세한 재래식 축사는 조사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조사되는 축사시설은 면적, 사육축종, 건축연도, 사육수, 건물관리대장이 중점 조사되어 일람표를 작성하여 오는 8월 3일부터 13일까지 축협을 통해 전산망을 활용하여 조사표를 집계하고 분석할 방침이다. 앞으로 농림부는 이 자료를 이용 축산업 발전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계 복병아리 이후에도  
당분간 생산잠재력 높다**

육계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복병아리가 끝나면 큰 폭의 감소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었으나 지난 '97년 3/4분기에 입식된 종계군의 숫자가 많아 당분간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높다고 분석이 된다. 전체 생산잠재력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단기적으로 보면 7, 8월에 생산에 가담할 종계수가 높기 때문에 전망보다도 많은 병아리가 생산되어 공급될 소지가 많아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